

LOGIC PRO · 무료 맛보기

Logic Pro 처음부터 완성곡까지

맥이 처음인 사람이 내 곡을 음원으로 내보내기까지 — 실제 1:1 레슨 강의 슬라이드

3강

49장

Logic Pro 12 · macOS 26 기준

MHc 추계예술대학교 작곡과 · 영화 <라스트썸><땃글부대> 작·편곡 참여

HOW TO USE

이 자료를 쓰는 법

순서대로 보세요

1부(맥 시스템)를 건너뛰고 싶어집니다.
건너뛰면 석 달 내내 "파일이 없어졌어요"
"소리가 안 나요"에 시간을 씁니다. 앞쪽이
뒤를 받칩니다.

로직을 옆에 켜고

한 장을 보고 바로 따라 하세요. 각 강 끝의
실습과 점검 장은 다음 강으로 넘어가도
되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.

내 곡에 적용하기

연습 파일이 아니라 **자기가 만들 곡**에 바로
써야 남습니다. 3회차에서 만든 8마디가
마지막 마스터링까지 이어집니다.

CONTENTS

차례

1부 · 맥 시스템	
1회차 — 맥의 구조와 파일 경로	4

3부 · MIDI와 편곡	
7회차 — MIDI 입력 · 피아노를	24

5부 · 믹싱	
컴프레서 — 들쭉날쭉 줄이기	29

LOGIC PRO · 1회차

맥의 구조와 파일 경로

로직을 켜기 전에, 내 파일이 어디 있는지부터

2시간

수업 끝날 때 이 세 가지가 됩니다

- 내 파일이 어디 있는지 경로로 말할 수 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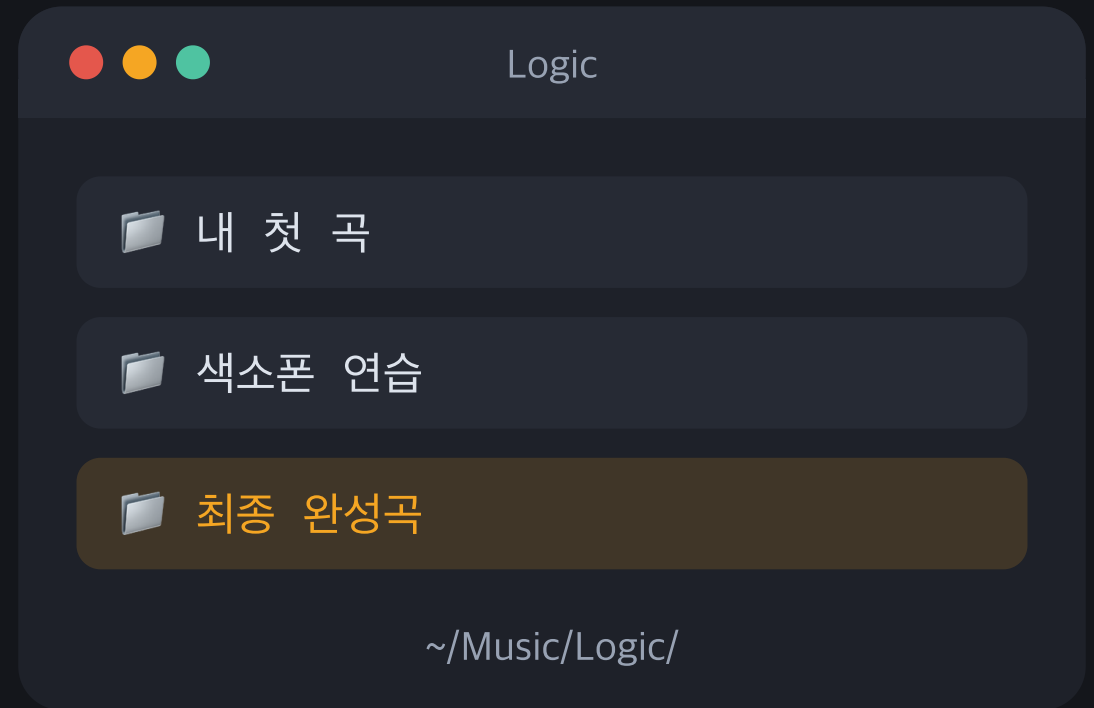
"바탕화면에 있어요" ❌ → "~/Music/Logic에 있어요" ✅

- 어떤 폴더든 3초 안에 열 수 있다

단축키 하나로

- 내 로직 프로젝트를 어디에 저장할지 정했다

오늘 만든 그 폴더에, 24회차 완성곡이 들어갑니다



왜 이걸 먼저 하나

이 세 문장은 제가 매년 듣는 말입니다



"곡이 없어졌어요"

다운로드 폴더를 청소하다 3개월치 작업을 지웠습니다.



"소리가 안 나요"

설정에서 출력 장치 한 줄이 잘못 잡혀 있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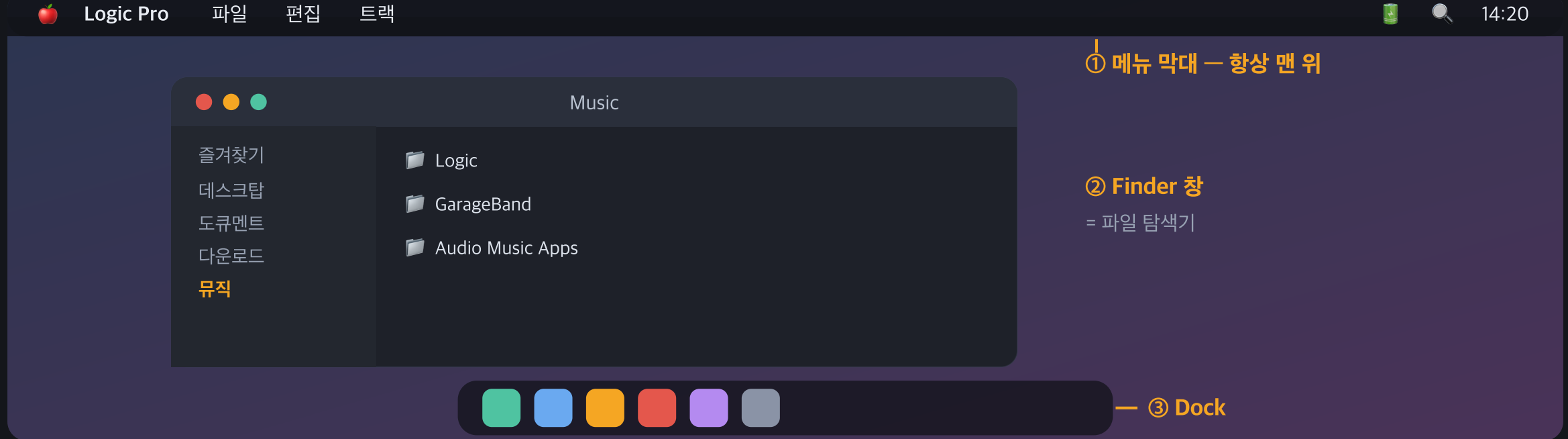


"용량이 없대요"

로직 사운드 라이브러리만 70GB를 먹는 걸 몰랐습니다.

세 개 전부 음악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전부 오늘·다음 주 내용으로 예방됩니다.

맥 화면은 크게 세 덩어리



① 메뉴 막대

지금 앞에 있는 앱의 메뉴가 뜹니다. 앱마다 내용이 바뀝니다.

② Finder

파일 탐색기. 끌 수 없습니다. 항상 켜져 있어요.

③ Dock

자주 쓰는 앱. 여기 없는 앱도 맥에 다 있습니다.

첫 번째 충격

바탕화면도 사실은 그냥 폴더입니다



익숙한 풍경이죠

이 화면이 곧 **~/Desktop** 폴더의 내용물입니다.

바탕화면은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폴더 하나입니다. 그 폴더 안을 화면에 그냥 펼쳐서 보여줄 뿐이에요.

그래서 바탕화면에 로직 프로젝트를 두면 **정리 안 된 서랍에 악기를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.** 언젠가 실수로 버립니다.

오늘의 핵심 ★

경로(path)는 그냥 주소입니다

맨 앞의 / = 맥 전체

/Users/hong.gildong/Music/Logic/내곡.logicx

|
사람들이 사는 동네

|
그중에 내 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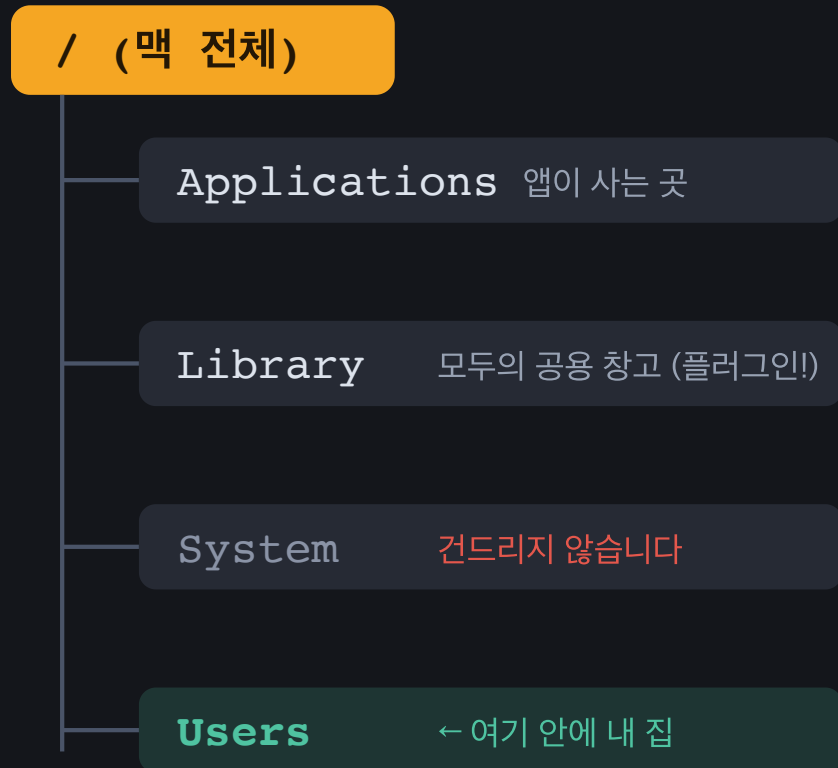
음악 방 · 그 안의 로직 서랍

|
서랍 안의 내 곡

슬래시 / 는 "그 안으로 한 칸 들어간다"는 뜻입니다.

서울시 → 마포구 → 서교동 → 12번지 → 302호. 딱 이 구조예요.

맨 위 / 안에는 딱 4개만 보면 됩니다



/Applications

Logic Pro가 여기 있습니다. Dock에 없는 앱도 전부 여기 있어요.

/Library

외부 플러그인이 설치되는 곳. 다음 주에 직접 열어봅니다.

/Users/내이름

내 물건은 전부 여기. 오늘 다루는 건 사실상 이 안뿐입니다.

~ 이 물결표는 "내 집"이라는 뜻입니다

매번 `/Users/hong.gildong` 이라고 길게
쓰기 귀찮으니까,
맥이 정한 줄임말이 물결표입니다.

~	<code>/Users/hong.gildong</code>
~/Music	<code>/Users/hong.gildong/Music</code>
~/Desktop	<code>/Users/hong.gildong/Desktop</code>

키보드에서  +  (숫자 1 왼쪽)

사람이 여럿일 수 있습니다

`/Users/ 손님`

`/Users/ 나 ~`

`/Users/ 가족`

물결표는 로그인한 사람의 집을 가리킵니다

홈 폴더 7남매

 데스크탑 ~/Desktop

아까 본 그 바탕화면

 도큐먼트 ~/Documents

문서, 악보 PDF 같은 것

 다운로드 ~/Downloads

인터넷에서 받은 것. 임시 공간

 뮤직 ~/Music

로직이 사는 방. 오늘의 목적지

 무비 ~/Movies

영상

 픽처 ~/Pictur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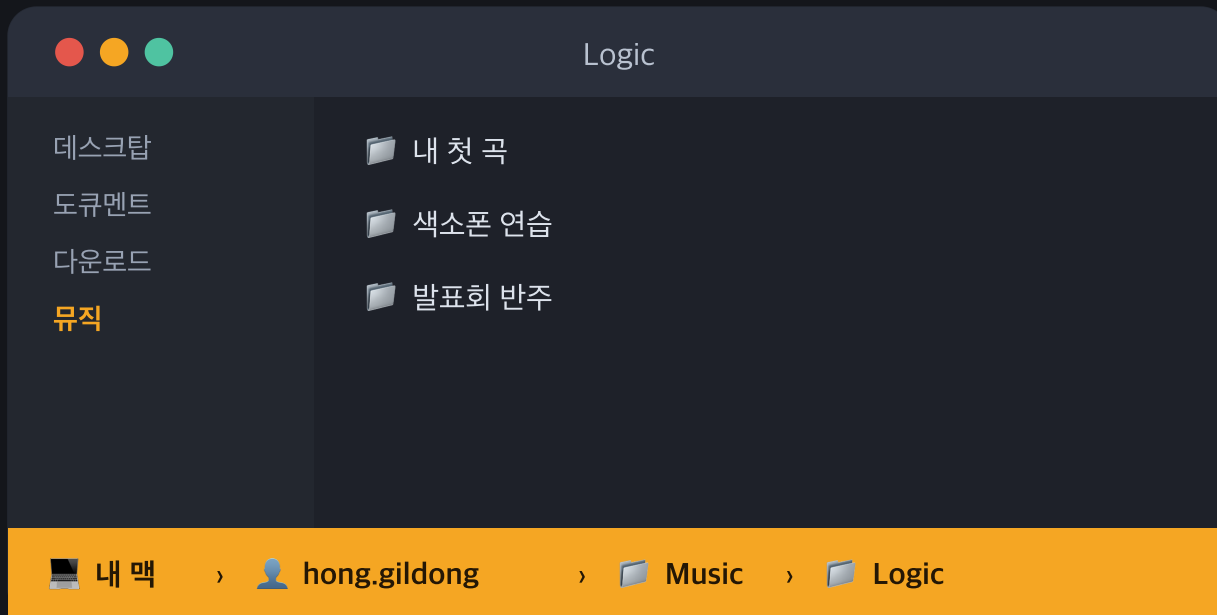
사진

일곱째는 Library — 앱들의 설정이 숨어 있는 방입니다. 평소엔 안 보이게 숨겨져 있어요. 뒤에서 꺼내 봅니다.

경로 찾는 법 ①

경로 막대를 커두세요

한 번 켜면 계속 켜져 있습니다



↑ 창 맨 아래에 지금 위치가 항상 표시됩니다

켜는 법

Finder 메뉴 > 보기 >
경로 막대 보기

-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보입니다
- 중간 폴더를 더블클릭하면 그리로 점프
- 여기서 위로 끌어다 놓으면 파일 이동

이 파일, 정확히 어디 있지?

파일 클릭하고



정보 가져오기

(오른쪽 클릭 > 정보 가져오기 와 같습니다)

내곡.logicx 정보

종류	Logic Pro 프로젝트
크기	1.2GB
위치	/Users/hong.gildong/Music/Logic
생성일	2026년 8월 25일
수정일	오늘 오후 2:14
잠금	☐

"위치" 줄이 그 파일의 주소입니다. 여기 나온 글자를 드래그해서 복사할 수도 있어요.

어떤 폴더든 3초 만에



폴더로 이동 (Go)

폴더의 경로 입력:

`~/Music/Audio Music Apps`

이동

숨은 폴더도 열립니다

눈에 안 보이는 폴더도 주소만 알면 갑니다

물결표 그대로 씁니다

`~/Music` 이라고 쳐도 알아듣습니다

자동완성이 됩니다

앞 글자만 치고

Tab

나머지 두 개

④

창 제목을 우클릭

Logic ▾

Logic

Music

hong.gildong

내 맥

위로 가는 길이 **한 번에** 펼쳐집니다. 원하는 데를 바로 클릭.

⑤

숨은 파일 보기

⌘

↑

.

누를 때마다 **켜졌다 꺼졌다**

숨은 파일은 맥이 일부러 감춘 것입니다. 확인만 하고 다시 **끄세요**. 지우면 안 됩니다.

Spotlight는 편리하지만 해결책은 아닙니다

⌘

space



내곡



내곡.logicx

파일명·앱·계산·단위변환까지 다 됩니다. 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축 키예요.

응급처치

이미 잃어버린 파일을 지금 당장 찾을 때

본치료가 아님

이름이 최종2.logicx면 검색해도
어느 게 진짜인지 모릅니다

검색으로 찾는 건 응급처치, 정해진 자리에 넣는 게 본치
료입니다.

이제 노트북 열고 같이 해보겠습니다

- 1 Finder 열고 **경로 막대** 켜기
보기 > 경로 막대 보기
- 2   **G** 로 ~/Music 열기
- 3 그 안에 **Logic** 폴더 만들기
이미 있으면 그대로 사용
- 4 그 안에 **내 이름** 폴더 만들기
- 5 그 폴더를   로 열어
위치 줄 읽어보기

끝나면 이 문장이
말이 되어야 합니다

~/Music/Logic/홍길동

"내 곡은 여기 들어갑니다."

폴더 이름은 **영문** 또는 **한글**, 띄어쓰기 **없이**.

특수문자(/ : * ?)는 쓰지 마세요 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.

오늘 정하고 갈 것 ★

로직 프로젝트는 어디에?

여기에 두세요

~/Music/Logic/

- 로직이 원래 사는 방입니다
- iCloud가 안 건드립니다
- 청소하다 지울 일이 없습니다
- 곡 하나당 폴더 하나로 관리

여기는 피하세요

~/Desktop 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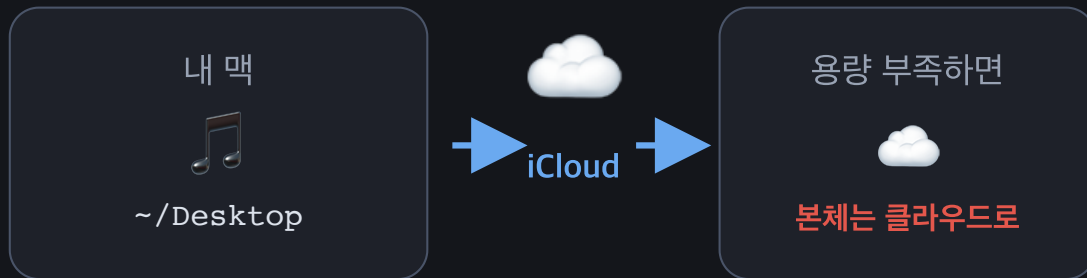
~/Downloads ❌

~/Documents ⚠️

- 바탕화면·다운로드는 청소하다 날아갑니다
- 데스크탑·도큐먼트는 iCloud 동기화 대상일 수 있습니다 →

함정 주의

iCloud가 내 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



로직에서 열면
"오디오 파일을 찾을 수 없음"

지금 확인

시스템 설정 > Apple 계정 > iCloud >
iCloud Drive > "데스크탑 및 문서 폴더"

- 켜져 있으면 바탕화면·문서가 클라우드로
- 용량이 모자라면 본체를 빼고 썬네기만 남깁니다
- 로직은 그 순간 오디오를 못 찾습니다

그래서 ~/Music입니다. 여긴 동기화 대상이 아니에요.

다음 주 전에 확인해 오실 것

70GB+

로직 사운드 라이브러리만
이만큼 먹습니다

 메뉴 > 이 Mac에 관하여 > 저장 공간

남은 용량이 100GB 미만이면 다음 주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.

외장 SSD 쓰실 분

포맷	APFS 로 하세요
피할 것	exFAT — 작업 중 사고 납니다
연결	작업 중엔 절대 뽑지 않기

숙제 전에 한 가지 더

다음 주 수업 전까지 로직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미리 받아 오
세요.

안 받아 오시면 다음 주 2시간을 다운로드 기다리는 데 씁니다.

오늘 딱 세 줄

1

경로는 주소다

슬래시는 "안으로 한 칸". ~는 내 집.

2

   하나면 어디든 간다

그리고   로 위치를 확인한다.

3

내 곡은 ~/Music/Logic/내이름 에

바탕화면·다운로드·iCloud 폴더에는 두지 않는다.

다음 주까지

과제 (10분이면 됩니다)

- ① 오늘 만든 폴더를 ⌘로 열어
위치 줄을 사진 찍어 오기
- ② ⌘ ↑ G 로 아래 폴더 열어 화면 캡처
~/Music/Audio Music Apps
- ③ 저장 공간 확인하기
🍏 메뉴 > 이 Mac에 관하여 > 저장 공간
- ④ 로직 사운드 라이브러리 다운로드
이것만은 꼭. 안 하면 다음 주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.

화면 캡처 단축키



화면 전체



원하는 영역만

찍은 사진은 ~/Desktop에 저장됩니다 —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?

다음 주 2회차

로직이 쓰는 맥의 폴더들
+ 소리 나오게 만들기

LOGIC PRO · 7회차 · 3부 시작

MIDI 입력 그리고 피아노롤

이제 내 손으로 연주해서 넣습니다

2시간

오늘의 목표

연주할 줄 몰라도 음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



건반이 있으면

그냥 연주해서 녹음합니다



건반이 없으면

컴퓨터 자판을 건반처럼 씁니다



연주가 어려우면

마우스로 하나씩 그립니다

세 번째 방법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. 건반을 못 쳐도 곡을 만들 수 있어요 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.

MIDI는 소리가 아니라 **지시서**입니다

MIDI가 담는 것

- 어떤 음을 (C3)
- 언제 (1마디 2박)
- 얼마나 세게 (80)



악기가 그걸 읽고



소리를 냅니다

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

악보와 연주자의 관계

악보(MIDI)는 그대로 두고 연주자(악기)만 바꿀 수 있습니다

그래서 나중에 다 고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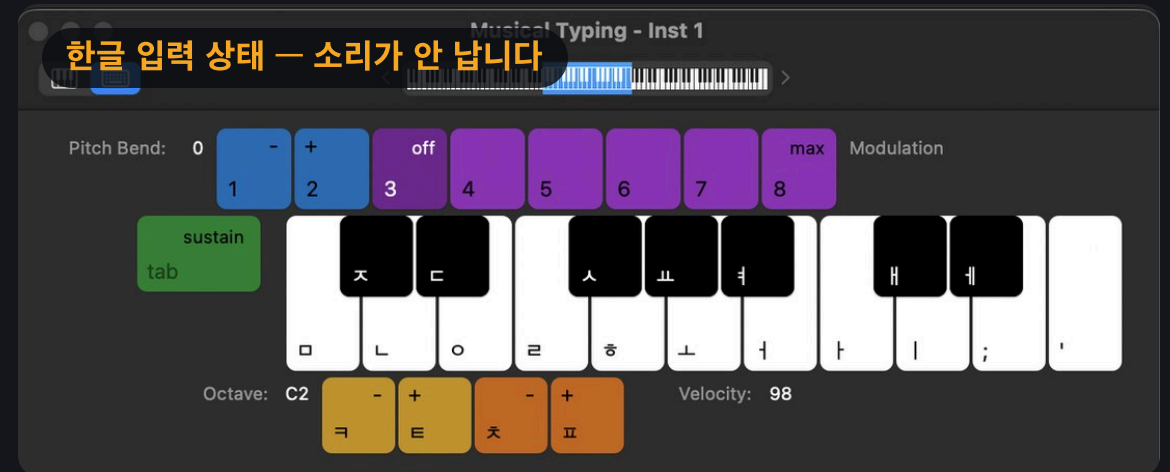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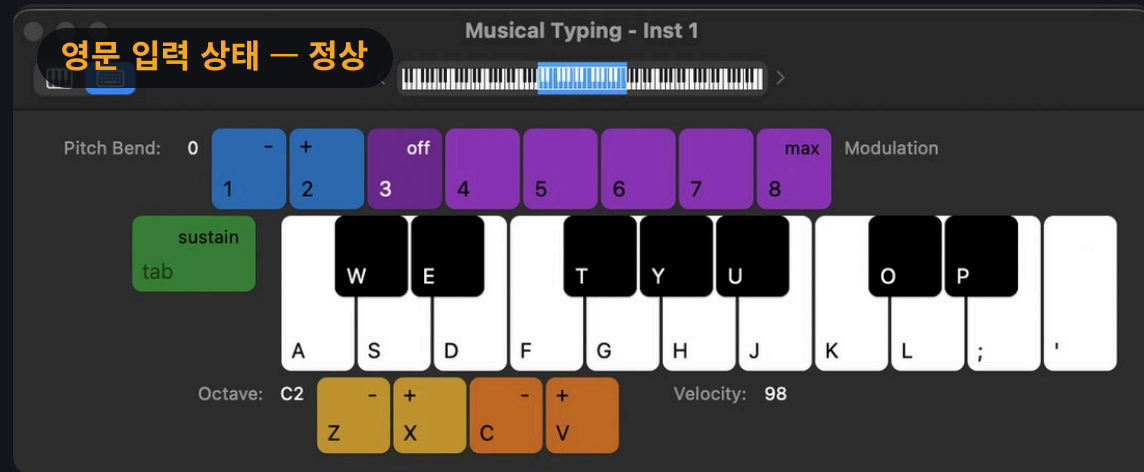
- 음 하나가 틀렸다 → 그 음만 고친다
- 박자가 밀렸다 → 제자리로 옮긴다
- 악기가 마음에 안 든다 → 갈아 끼운다 (6회차)
- 조가 안 맞는다 → 통째로 옮긴다 (5회차)

녹음한 오디오는 이 중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.
MIDI의 힘이 여기에 있어요.

뮤지컬 타이핑 —

⌘

K



키 라벨이 한글로 보이면 음이 안 나옵니다. 영문으로 바꾸세요 — 오늘 가장 많이 나올 질문입니다.

MIDI를 눈으로 보는 창

여는 법

리전을 더블클릭

또는

⌘

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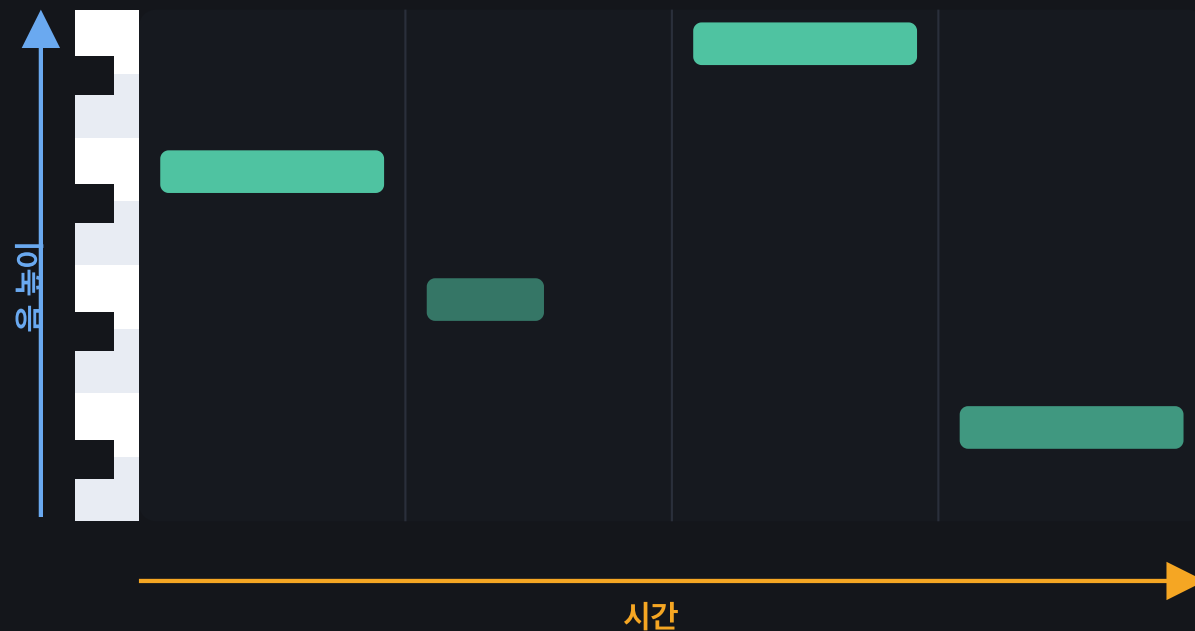
화면 읽는 법

가로 → 시간 (마디·박)

세로 ↑ 음 높이 (위로 갈수록 높음)

막대 길이
이 음의 길이

막대 색
진하기 세기 (벨로시티)



LOGIC PRO · 작업별 정리

컴프레서 — 들쭉날쭉 줄이기

EQ가 주파수를 다뤘다면, 이걸 시간을 다룹니다

다섯 손잡이 · 게인 리덕션 · 사이드체인 · 병렬

큰 데를 눌러서 전체를 올립니다



결과 — **작은 소리가 커진 것처럼** 들립니다. 실제로는 큰 소리를 줄이고 전체를 올린 겁니다.

압축 자체는 소리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작아집니다.

눌러서 생긴 여유만큼 전체를 다시 올리는 것(Make Up)까지가 한 세트입니다.

목적이 없으면 걸지 마세요

① 묻히지 않게

보컬이 어떤 데선 들리고 어떤 데선 묻힙니다.

차이를 줄여서 항상 들리게 만듭니다.

가장 흔한 이유. 보컬·베이스

② 앞으로 당기기

눌러서 평평해진 소리는 더 가깝게 들립니다.

거리의 세 요소 중 하나예요.

리드 악기를 앞세울 때

③ 붙이기 · 색

드럼 여러 개를 한 덩어리로 묶거나, 일부러 찌그러진 맛을 냅니다.

가장 나중에 배울 것

"이 트랙에 왜 컴프를 걸었나?"에 답할 수 없으면 끄세요. EQ와 같은 기준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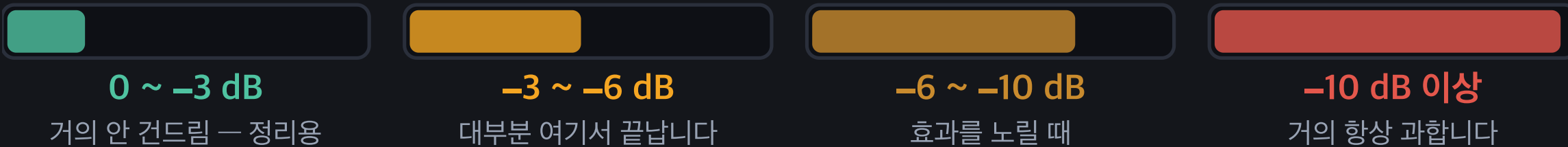
특히 이미 일정한 소리(신스 패드, 루프, 샘플)에는 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.

손잡이는 다섯 개면 됩니다

손잡이	무엇을 정하나	출발점
Threshold	어디서부터 누를지 — 이 선을 넘은 소리만 눌립니다	-3 dB쯤 눌릴 때까지 내리기
Ratio	얼마나 세게 누를지 — 4:1이면 4 넘어온 걸 1만 통과	3:1 ~ 4:1
Attack	얼마나 빨리 누를지 — 넘은 뒤 몇 ms 만에 반응하나	10 ~ 30 ms
Release	얼마나 빨리 놓을지 — 내려간 뒤 몇 ms 만에 손을 떼나	100 ~ 200 ms
Make Up	눌린 만큼 다시 올리기 — 또는 Auto Gain에 맡기기	게인 리덕션만큼

로직 Compressor에는 손잡이가 더 많지만 나머지는 전부 기본값으로 두세요.
이 다섯 개로 안 되는 일은 다른 손잡이로도 안 됩니다.

게인 리덕션 미터만 보면 됩니다



숫자를 보지 말고 **바늘이 움직이는 리듬**을 보세요.

곡의 박자에 맞춰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합니다. 계속 눌러 있으면 Threshold가 너무 낮은 겁니다.

잘 걸린 상태

센 음에서 바늘이 쏙 들어갔다가 다음 음 전에 0으로 돌아옵니다. 곡의 박자가 바늘에서 보여요.

잘못 걸린 상태

바늘이 계속 눌러 있고 안 돌아옵니다. Threshold가 너무 낮거나 Release가 너무 느린 겁니다.

어택을 빠르게 하면 맛이 사라집니다

어택 느리게 (10~30ms)



때리는 맛이 남습니다 — 보통 이쪽

앞의 뾰족한 부분이 **때리는 맛**입니다. 어택을 빠르게 하면 그걸 먼저 깎습니다.

어택 빠르게 (1ms 이하)



때림이 깎여 밋밋해집니다

Attack — 느리게가 기본

때리는 소리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 뒤를 누릅니다. 드럼·기타 뜯는 소리는 이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.

Release — 다음 음 전에

다음 음이 오기 전에 0으로 돌아와야 합니다. 애매하면 Auto Release를 켜세요.

ABOUT · LESSON

만든 사람

MHc — 추계예술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영화 <라스트썸>, <뎃글부대>의 작·편곡에 참여했습니다. 2022년부터 화성학·미디·영화음악 1:1 레슨을 하고 있고, 이 슬라이드는 실제 레슨에서 쓰는 자료 그대로입니다.

혼자 하다 막히면 1:1 레슨(온라인·오프라인)으로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mhc-music.netlify.app · 인스타그램 [@myung_h95](https://www.instagram.com/myung_h95)

전체 22강·324장은 판매 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이 맛보기 파일은 자유롭게 공유하셔도 됩니다. 단, 내용을 고치거나 떼어 내어 쓰지는 말아 주세요.

Logic Pro는 Apple Inc.의 상표이며, 이 자료는 Apple과 관계없는 개인 제작물입니다.